

[TV]

TV 2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비밀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EBS), Program Name, Time, and Description. Includes programs like 'KBS 뉴스광장', '생방송 세상의 아침', 'MBC 뉴스투데이', 'KBC 뉴스지금', 'Easy Job English', etc.

재탕·삼탕 일색이었던 올 추석 안방

방송사들 참신한 기획보다 기존 프로에 '추석특집'만 붙여

긴 추석 연휴 동안 TV에서는 온갖 '추석특집' 프로그램이 넘쳐났다. 너도나도 한가위를 맞아 '특집'이라는 수식어로 치장했다. 그러나 뭔가 새로운 것을 기대한 시청자들에게 TV는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참신한 기획은 손에 꼽을 만했고 대부분 프로그램이 '누이만 특집'이었기 때문이다. 연휴 기간 가장 큰 벗인 TV는 시청자들에게 이미 본 프로그램을 '보고 또 보라'고 했다. 방송사들은 대부분 기존 정규 프로그램에 '추석특집'이라는 수식어만 붙인 후 진행자들이 한복을 입고 나오는 것으로 '특별함'을 대신하거나 기존에 방송했던 내용을 새로 편집해 '스페셜' 혹은 '베스트'로 포장해 내보냈다. 이 과정에서 추석 연휴에도 오락 프로그램 중 시청률 1위를 차지하며 이름을 한 '무한도전'('사신')의 경우는 '술집 접대부'고 '공판'으로 물의를 빚은 정준하를 버젓이 내세워 구설에 올랐다. 그는 '추석특집 무한도전'과 '무한도전 스페셜', '스포츠스타 Love 무한도전 2탄 효도' 등을 통해 잇달아 '추석특집'이라는 수식어만 붙인 후 진행자들이 한복을 입고 나오는 것으로 '특별함'을



KBS와 SBS에서 같은 제목으로 준비한 '사이다'나 KBS '미남들의 수다', SBS '동안선발대회', MBC '미남스타 총출동 꽃보다 아름다워' '스타 S라인과 몸매 선발대회' 정도. 이처럼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참신한 아이디어 없이 판에 박은 듯한 기획으로 일관한 까닭에 명절 뒤를 시청자들에게는 공허한 남개 됐다.

전지현·황정민 '스크린 데이트'

영화 '슈퍼맨이었던 사나이' 남녀 주인공에 캐스팅

최근 할리우드 진출과 활약을 마친 배우 27일 CJ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전지현은 전지현이 '슈퍼맨이었던 사나이'(감독 정은철·제작 CJ엔터테인먼트)에서 남자 주인공을 맡은 황정민과 호흡을 맞춘다.

Living TV and TBN promotional banners. Living TV: '세상속으로 (오전 9시)' with a list of programs. TBN: '광주교통방송 (FM 97.3 MHz)' with a schedule.

국제보청기 (International Hearing Aid) advertisement. Features '창립 25년' (25th Anniversary) and '본점 (동구청남동성사역) (062) 227-9940'.

케이블·위성TV 28일

Table listing cable and satellite TV channels and their programs. Includes YTN, MBN, KTV, MBC MOVIES, XTM, 케치온, OCN, 슈퍼액션, and others.

Table listing cable channels and their programs. Includes CBS 기독교방송, CMB 광주방송, KCTV 광주방송, SBS 스포츠, KBS 드라마, YTN 스타, SBS 드라마, SBS 골프채널, SBS N Sports, SBS KMTV, and others.

Table listing cable channels and their programs. Includes PBC 광주광역시방송, LIVING TV, Mnet, SBS 스포츠, Olive(Food & Life), 다큐, MBC 게임, 월드컵엔트, 메디 TV, 생활건강 TV, GTV, and others.

Table listing cable channels and their programs. Includes BTN(불교TV), EBS1, CNN, AFN Korea, STAR SPORTS, KBS PRIME, and others.